

佛! 歸依法! 歸依僧! 한다.

八公山の登山客 銀海寺의 恭拜者 四時로 곤여 집
이 없이 온다. 遠近富豪들의 納涼名所로 도이름이 높
으나 地方農民들의 恭拜地로 더욱 名聲이 들린다.

저! 大和農民들이 한여름 동안 풍사를 다 지어 노
코 『伊勢마이리』를 하더니 이 지방사람들으게는 銀
海寺 恭拜를 必然的 依例行事로 觀念을 가지고 있다
『진흙 아즈랑이 끼인 날 桃花杏花滿發하고 蜂
蝶이 散亂한 治日洞을 지나 술나무 그늘서 놀이하랴
부는 禁捕亭을 서서 步調를 드문~히 하야 左右
를 監히 보면 김푸른 松林사 이 新綠이 피어오르고 新
綠의 사이에는 가지각색 별々 꽃이 군대~ 집
쳐 있다.

銀海寺를 차저 오는 손님 勝地의 春光에 醉하는 이도
만치 마는 銀海의 여름을 더욱 사랑한다. 天王門前
의 萬樹長林 綠陰帳幕이 진대 磐石도 한조 돌계타
川流不息 西川을 佛道場의 惠澤으로 고기도 한살지
있네 밤이 되면 林間月 月下에 숲이 우는 杜鵑새 南
庵에 念佛소래 志士와 道客으로 하여금 臆塞한 胸膈
을 共鳴도 하며 眞如의 本消息을 빛이 도준다.
가을철도라 왔다. 八公山丹楓求景 안이 하고 못살

내라 八萬의 大邱府民 왔을다 루어 많이 도 온다. 洞
口로 붙어 山行六七里 潺潺한 流水水曲을 들으면서 百
與골 中岩골 을나가면 滿目清光이 楓世界로다.
『霜葉이 勝於二月花』라는 詩句는 이 같은 곳을 말한 듯
하나 實相이 詩意에 넘침을 이루어 表示할가?
中岩聖殿에 『스리크』를 멈추고 천々히 안저서 顔
山紅葉을 玩賞하고 千年壽藥水湯에 마른옥을 拭신
後 三印岩 動石岩을 차례로 巡禮한다. 妙峯의 老佛
岩에 가지~衆生願을 正襟危坐 盟誓하고 石逕
빛진길노 念々不已도라 온다.

海門橋下에 停일고 白雲峯上에 坐오면 禪房은 고
요히 禪定에 잠자고 講堂은 요란히 讀聲에 울주인다.
淨深한 方丈室 輝煌한 燈檠下 獵史는 그만두고 後
園竹韻을 마쳐 公山威德을 詠揚하고 門前松風을 마
타 銀海聖地를 讚頌하니 武陵桃園이 예안이며 羽
化登仙이 나인듯도하다. 그러나~ 東坡居士의
『溪聲便是廣長舌, 山色豈非清淨身』 이라는 詩意를
다시금~ 觀通하고 이리한 靈山聖刹의 默示를 念
到念窮 無念處하야 心空及第 大丈夫하니 西方樂土
가 이곳인가 하노라.

行脚閑題

行脚子

二月八日

◇智異山花開谷

國師庵一夜半日은 지냈다. 午飯後에 말을 옮겨 七
佛庵으로 向하였다. 花開谷노들어 서니 碧水는 흘러
莊嚴한 音響을 알외는데 峰巒은 소사 雄麗한 姿勢를 자
담한다. 옛던 詩人 畫家잇서 이 智異山의 情景을 그려
내라 山谷間에 응추리고 잇는 草家 山巔에 골과 峽
가치그려 잇는 火田은 内同胞의 窮한 生活을 보이는 무
엇이 아닐스가 이 조흔 山水도 内同胞의 疾는 苦를
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닐스가 애라 두어라 가난한 老령
만해 부엌하노 차라리 苦를 轉하야 樂으로 보고 慘을
換하야 景으로 보자 陽巔에 세운 半間草屋을 仙人의
깃드리는 곳으로 보아오면 그만이다. 벽 巖嶺드느골
을 右로 두고 범왕스골노들어 山村小童과 弄談하면서
작구~을나 般若峯가상에 잇는 七佛庵亞字房에

當到하였다. 夕陽이 山 넘어로 向할제.

二月十三日

◇冽·淚水와 「단君」

오늘은 高氏의 史談을 들었다.
史에 冽水는 「黏蟬」을 지나 흐른다는 말이 있다. 그
리면이 「黏蟬」의 所在를 알면 冽水가 어느 것인지를
確知할 것이다. 그래서 丁茶山선비들은 別々臆測으로
冽水를 定하였다. 저! 丁茶山장손이도 漢江을 冽水
라하야 自號를 冽水라稱하기까지에 이르렀다. 그러나
近年에 와서 「黏蟬」의 碑를 大同江口에서 發掘한 일
이 있다. 차라 冽水가 大同江입이 明證되였다. 同時에 淚
水가 鴨綠江입도 알게 되었다.

支那宋나라 사람 孫穆이 著한 「鷄林遺事」에는 「檀
君」이라고 「檀」字를 썼고 高麗一然大師의 著한 三

國遺事에는 「檀君」이라고 「檀」字를 썼스니 時代의 先後를 보아 「鷄林遺事」의 것을 取치 않을 수 없다. 三國遺事에는 檀이 檀으로 誤字되얏을 지 모르겠스나 鷄林遺事는 그러치 않다.

檀—倍達(即拔達) 闕—那羅 君—任儉 이러케 註釋되어야 한다. 고.

—智異山은 昔日地利山이라 썼스나 「地利」란 「지리」即 「질」인 것인데 智異山의 一名 頭流山이란 「頭流」는 「두류미」即 「鶴」이란 뜻 智異山中에 靑鶴洞이 있다 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말 智異山全體를 靑鶴洞으로 보는 것이 옳다. 智異山의 山頂이 길고 丘鶴이 나래를 퍼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注意할 것이다.

—塘津江을 或은 「斗峙」 「豆峙」라 쓰스나 「斗峙」란 「두침이」即 「두성이」란 뜻 塘의 意다. 라고.

二月十六日

◇佛舍利拜見코

泉隱寺에는 印度에서 歸寂한 李英宰師가 어느 古塔에 서일은 佛舍利가 있다 한다. 꼭 보고 싶다. 그러나 이를

감직할 사람이 出他하고 있스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게었다. 天候가 酷寒하야진다. 日前에 든 威氣가 수히 풀너가지 않는다. 오늘날은 各法堂과 藥師殿을 돌아 보고 다 뜻한 房에 終日누어 있겠다. 翌日午後에 權師 돌아왔다. 佛舍利를 보았다. 작기가 가장(黍)알 같다 (조알보다는 작고) 이런 것 세 개가 서로 붙어 品字形으로 되었다. 한 개라 할 수가 세 개라 할 수가 빛은 無色인데 있다면 土色에 가깝다. 그리고 돌갓기도 하고 뼈갓기도 하다. 우리가 뜻기에는 佛舍利란 五色이 玲瓏하고 祥光이 도는 靈珠로 녀었더니 實地로 보니 多少不思議의 그 무엇이 업서진다. 그럴 것이다. 舍利란 骨의 뜻 佛陀의 骨이라 도 色身의 것으로는 우리의 것과 같은 것 만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佛陀의 偉業을 追慕하는 赤誠이 佛舍利로 하여금 超思慮의 祥光瑞色을 날아내게 하는 것일 것이다. 이 泉隱寺舍利에 對하야는 英宰君이 印度에서 泉隱寺住持 權東喜師의 게 보내인 편지에 써너 別紙가 다음과 같아 쓰였다.

「住持스님 우리 절에 塔이 업지요 名山치고 하늘이 이를 성스히 녀이사 日前에 眞신사리가 파를 小僧으로 하여금 모시게 하얏습니다. 來歷은 拜謁時에 伏達하 겠사오니 眞신사리 할 모실 經倫하십시요 塔型은 東

土式으로 말고 돌흔한 우리 곳이오니 西土式圓塔으로 모시시다」

또 英宰君의 一九二七年一月六日(月)의 日記를 보면 다음과 같아 쓰여졌다.

『B師에게서 佛舍利三顆를 拜受하였다. 이는本

一行脚記中에서

寺古塔中에 奉藏하였섯는 것인데 倒壞後 掘한 中의 一部分이다」라고

釋尊가 신지二千餘年 水陸萬里外 印度의 것을 손 에 들고 보는 因緣이 없다 할 수 없다.

生 的 幻 想

都 鎮 鎬

사람의 살림은 언제나 봄이라야 하오리니 나는 봄의 나라를 그리워하니 다 꿈에라도 오 부드러운 바람의 향기로 유포곡에 平和의女神은 神祕의宮殿을 내려서 大地로 밀너드는 生命의 붉은 血潮위를 하얀 맨발로 성적 성적 걸어 옵니다 붉은 薔薇의 花瓣처럼 어엿은 그 입술에서는 生의讚美소리가 微妙한 音湖로 새여 남니다.

아아 봄은 어느 듯 大地에 가득합니다 배추배죽리 올오는 푸나무의 새송들이

부드러운 봄바람의 향기를 유포곡에 平和의女神은 神祕의宮殿을 내려서 大地로 밀너드는 生命의 붉은 血潮위를 하얀 맨발로 성적 성적 걸어 옵니다 붉은 薔薇의 花瓣처럼 어엿은 그 입술에서는 生의讚美소리가 微妙한 音湖로 새여 남니다.

아릿다운 小女들은 나뭇잎을 손에 걸고 두서넛씩 짚을지어 산으로 들노해어 갑니다 안진땀이 꽃을 안어 한송이씩 가슴에 끼로고 蘭草꽃을 비녀삼아서로 안고 춤을 추니